

#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 4 >

梁 啓 超 著  
沈 暉 俊 譯

## 2. 文意와 內容上의 識別

위에서 말한 것은 책의 來歷에 대해 置重한 것인데 여기서서는 책 自體에 대해 置重하였다. 책 自體로부터 識別해 내는데에는 대단히 번잡스러운 科學的인 方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方法은 다섯 가지가 있다.

1) 字句의 缺陷에서 識別하는 경우: 僞作을 하는 者들은 恒常 모르는 사이에 字句안에 僞作의 자취를 들어낸다. 우리들은 이와같은 사소한 點에 着眼함으로써 重大한 發見을 하는 수가 있다. 그 年代를 잘못 쓴 것도 이런 곳에서 파낼 수 있다. 이의 考證方法은 또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人稱上의 識別: 이것은 또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책속에 某人의 말이라고 引用한 것은 반드시 그 某人이 지은 것이 아니다. 萬一 책은 그 某人이 말했었다고 한다면 『某人이 가로되』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 例컨대 繫辭·文言은 孔子가 모두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그중에는 數많은 『子曰』이 있다. 만약 참말로 孔子가 지었다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子曰』이란 말을 眞實로 孔子가 한 말이라 해도 繫辭·文言은 오로지 孔子가 지은 것이 안 된다. 또한 孝經은 어떤 사람들은 曾子가 말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孔子가 말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책머리에 있는 『仲尼(孔子)가 生存했을 때 曾子가 모셨다』는 말은 語不成說이 된다. 만약 孔子의 作이라고 한다면 弟子를 부를 때 曾子(曾선생)로 부를리가 없는 것이다. 만약 曾子의 作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子(선생)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스승의 字(즉 仲尼)를 부를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孝經은 곧 漢나라 初葉의 사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戰國末葉의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考證할 수 있다. 즉 孔子 曾子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다.

B. 책속에 諡號를 일컫는 사람이, 실은 作者보다 後代人이라면 그 作者라는 사람이 지은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죽고 다 돼야 비로소 諡號를 부르고, 生存자에게

는 諡號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周初以來의 通例이다. 管仲은 齊桓公以前에 죽었으니 自然 齊桓公의 諡號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管子」는 管仲이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도리어 齊桓公이라는 呼稱을 쓰며 齊君 또는 齊侯라는 號稱을 안 쓰고 있으니, 이를 참말로 누가 믿을 것인가. 商鞅은 秦孝公이 죽은 뒤, 即時 逃亡하다가 被殺되었으니 自然 著書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孝公의 生存時에 著書했다면 孝公의 諡號를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商君書」는 商鞅의 作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秦孝公이라는 呼稱을 많이 쓰고 있다. 결국은 孝公의 生前의 著인 것인가 孝公의 死後 著인 것인가?

C. 甲朝의 著書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乙朝의 皇帝의 諱를 避하는 것은 반드시 乙朝人이라고 볼 것: 漢나라 以後의 책은 本朝의 皇帝에 대하여 반드시 諱를 避하고 있다. 晉書는 唐人이 纂修한 것이므로 李淵 李虎의 諱를 避했는바, 즉 陶淵明을 陶泉明이라 고치고 石虎를 石季龍이라 고치고 있다. 가령 唐人의 著가 아니라면 自然 唐帝의 諱를 避할 필요 없는 것이다. 元經은 참 怪異하다. 말로는 隋朝의 王通이 지은 것이라고 하지만, 도리어 戴淵을 戴若思로 쓰고, 石虎를 季龍으로 쓰고 있으니 어찌된 까닭일까. 또한 漢나라 文帝의 이름은 恒이므로 漢人의 著書에서는 恒山은 常山이라 고치고 陳桓을 陳常이라 고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 莊子속에도 도리어 陳常이란 呼稱이 있으니 글자가 만약 漢人이 베껴 쓸 때 제멋대로 고친 것이 아니라면 이 한篇 또는 적어도 이 한 段은 漢이 插入한 것이다.

둘째, 後代의 人名·地名·朝代名을 쓴 경우: 이것도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後代의 人名을 쓴 것: 例컨대 爾雅는 一部는 叔孫通이 만들었고, 一部分은 漢初의 여러 儒인들이 만들었으며, 그 大部分은 西漢末에야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漢學家들은 周公의 著書라고 推尊하고 있다. 그런데 그 책속에는 『張仲은 孝誠스럽고 友愛書라』라는 말이 있는데 張仲은 分明히 周宣王 때의 사람인데 周

公(B.C. 1105年 死亡)이 어찌 알 것인가? 또 管子에는 西施의 얘기가 있지만 西施는 分明히 吳王 夫差(B.C. 496~473)때의 사람인데 管仲(B.C. 646死亡)이 이를 어찌 알았을 것인가? 또 商君書에는 魏襄王의 얘기가 있는데 魏襄王(B.C. 335~B.C. 319)은 商鞅(B.C. 338死亡)이 죽은지 40餘年<sup>12)</sup>만에 즉위 했는데 商鞅이 어찌 그의 諡號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세가지 條項으로써 爾雅는 周公의 作이 아니고, 管子는 管仲의 作이 아니고, 商君書는 商鞅의 作이 아니라는 것을 證明할 수 있다.

B. 後代 地名을 쓴 경우: 例컨대 山海經은 大禹·伯益이 만들었다지만, 그 中에는 長沙·城都같은 秦·漢以後의 郡縣名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적어도 一部分은 漢人들이 만들었거나 或은 補添한 것이다. 우리들은 또 地名에서 間接的으로 左傳에서 말하는 「分野」<sup>13)</sup>에 대해서 觀察할 수 있다. 거기에는 12度分野의 說法이 있는데, 그것은 完全히 戰國時代의 思想이다. 나라(國)를 가지고 境界(界)를 삼았으므로 戰國時代의 魏·趙·韓·燕·齊·秦·楚·越같은 大國을 天上의 星宿에 分配하여 어떤 「宿」은 어떤 나라에 屬한다고 하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戰國時代의 產品임을 알 수 있다. 春秋時代에는 趙·魏·韓은 아직 나라를 이룩하지 않고 있으며, 燕은 아직도 대단히 작은 나라였으니 어찌 星宿의 分野에 該當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左傳이 이런 分野를 말한 것에서 左傳은 孔子와 同時의인 左丘明의 作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설사 左傳이 左丘明의 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部分만은 꼭 後人의 添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 後代의 朝代名을 쓴 것: 中國은 한 姓의 興亡으로써 朝代를 삼는다. 前代人은 반드시 後代名을 미리 알 수 없다. 그러나 堯典은 도리어 「(南方에 居住하는) 楚人들이 夏를 侵略한다」<sup>14)</sup>는 말이 있다. 夏는 곧 大禹가 天下를 차지한 뒤에 생긴 號稱이다. 秦以前의 外部民族들은 本(中國)民族을 불려서 夏라 하고 漢以後의 外族들은 本族을 불려서 漢이라 하고, 唐以後의 外族들은 本族을 唐으로 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도 스스로 漢人이라고 하고 있다. 華僑들은 지금도 自稱 唐人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後代사람들이 前代의 號稱을 부른 것이지, 前代의 사람들이

後代의 號稱을 使用한 것은 아니다. 堯典은 도리어 딱 우스운 일이니 本民族이 앞으로 夏라고 불려지리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宋板康熙字典과 同一한 우습꺼리가 아닌가?<sup>15)</sup> 우리들은 지금 그 篇首에 分明히 다음과 같은 句절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능히 古道를 상고하여 시행하는 堯임금」(曰若稽古帝堯)이다. 여기에 지금 提示한 이 證據를 덧붙이면 이 책이 반드시 夏商以後 孔子以前의 사람이 追述한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後人들은 도리어는 堯典等篇은 堯舜의 史官이 아니라면 이와같이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어찌 우습꺼리가 아니라.

셋째, 後代의 事實, 或은 法則을 쓴 것: 이것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後代의 事實을 쓴: 이것도 또한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事實이 分明히 後代에 發生한 것.  
商君書에 長平싸움의 記事가 있는데 이것은 商鞅이 죽은 뒤 78년의 일이다. 이 책은 長平戰以後의 사람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莊子에는 「田成子(가) 그 임금을 죽인지 12世만에 齊國이 생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陳恒으로부터 秦이 滅亡하기까지는 꼭 齊는 12世가 된다. 거기서부터 莊周時代까지는 不過 7·8世이다. 그러니 莊周가 어찌 陳氏에게 齊의 12世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 一篇이 반드시 秦漢間의 사람들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巧妙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또한 莊子는 비록 眞짜라 하더라도 外篇만으로 假作이 많으니 반드시 自상히 考證치 않으면 안 된다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 將來의 일을 豫言하여 僞作의 痕跡이 나타난 것: 이것은 左傳<sup>16)</sup>에 가장 많다. 左傳은 卜卦에 대한 記錄이 적 많은데 그 卜辭한 內容이 靈驗치 아니한 것이 없다. 가령 陳敬仲이 齊로 갔을 때 茲仲이 딸로서 妻로 주려 하면서 占을 쳤더니 『媯(陳姓)의 後孫이 姜(齊姓)에서 育成되어 五世에 昌盛하여 正卿에서 나란히 되고 8世뒤에는 이보다 더 클 수 없으리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後來의 事實과 하나 하나 相符되는 것이다. 설사 先見之明이 있었다 하더라도 決코 이와같이 靈驗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分明히 陳恒의

釋註 12) 商鞅의 死亡年代는 B. C. 338年, 魏襄王의 即位年代는 B. C. 335이나 漢書로는 4年뒤임. 또한 魏襄王의 死亡年代는 B. C. 319, 따라서 諡號가 생긴 것은 商鞅이 죽은지 漢書로 20年뒤임. 原文에 「四十餘年」은 아마 誤記인듯.

13) 戰國時, 天文家들이 中國全土를 天의 28宿으로 配當하여 區別한 것을 일컫음.

14) 舜典을 보면 「蠻夷猾夏」라고 있고 그 疏에 「往者蠻夷戎狄猾亂華夏」라고 이를 解釋하고 있다. ( ) 國語晉語를 보면 「又以違蠻夷以重文」라고 있고 그 註에 「蠻夷, 楚也」로 蠻夷는 南方에 居住하는 楚를 말하고 또한 이를 荆蠻이라고도 하며 當時는 裔夷로 보아서 蠻夷라고 일컬어 왔다. ( )

15) 康熙字典은 清代에 刊行된 것. 따라서 中國古本에서 珍本으로 치는 宋版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

16) 左傳 莊公傳22年. (p. 163).

8世孫以後의 사람들이 附會한 것이지 眞實한 事實일 리가 없다. 「또한 季札이 上國의 音樂을 觀察할 때」그 政治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批評하면서 人事의 興衰를 斷定하고 있는데, 그 말 가운데 靈驗치 않는 句節은 하나도 없다. 當時 晉의 卿은 全盛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는 도리어 晉나라는 장차 3家로 分割되리라 말하고 있다. 當時의 齊田氏가 齊나라를 차지한 以後의 사람이, 이 일을 追記할 때 신이 나서 신기한 靈驗의 얘기를 많이 얘기한 것일 뿐이리라. 우리들은 바로 이 신기한 靈驗의 얘기를 標準으로 삼아 이러한 얘기는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斷定하는 것이다.

c) 事實을 偽造한 것 : 「文中子<sup>17)</sup>의 中說」에서는 隋·唐의 有名한 사람들은 모두 그(原註王通)의 門下에 끌어 들이고 있다. 仁壽 2년에 李德林을 보고, 또한 일찍이 關朗을 만났었다 하는데, 實은 李德林이 죽은 仁壽 2年보다는 9年이나 앞선 때였고, 關朗은 120餘年前의 사람인데 어찌 王通을 볼 수 있었겠는가. 그밖에 房玄齡·杜如晦·李靖 등등이 모두 王通의 弟子라고 하고 있지만 달리 參考할 책이 없다. 여러 方面으로부터 觀察해 보면 「文中子の 中說」은 偽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萬一 王通이 참말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王通은 한푼의 價値도 없는 사람일 것이다. 萬一 다른 사람이 王通을 추겨 세우려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솜씨가 너무 拙劣한 것이다.

以上 세가지 중에서 a)는 事實과 相符되지 않고, b)는 豫言을 憑藉한 것이고, c)는 純全히 謠言을 造作한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조금만 조심하면 偽跡을 깨트릴 수 있다.

B) 後代의 法制를 쓴 것 : 亢倉子에는 「世態가 衰退해 가자 文章으로써 선비를 뽑다」(衰世以文章取士)라는 記錄이 있다. 「文章으로써 선비를 뽑는」制度는 六朝以前에는 없다가 唐以後에 비로소 있었다. 亢倉子는 莊周의 說으로서 戰國時의 사람인데 어찌 科學의 文體가 있게 될 것을 알겠는가? 이로부터 이 책은 반드시 唐以後의 사람이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六韜에는 「입금이 正殿을 避하다」(帝避正殿)는 記錄이 있다. 「正殿을 避한다」는 일은 先秦以前에는 없다가 漢以後 비로소 있게 된 것이다. 六韜는 周初의 書라고 하는데 周朝에 이러한 制度는 없었다. 이로부터 이 책은 漢以後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릇 朝廷의 制度나 法律, 社會의 風俗·習慣은 모두 이러한 例로서 基準을 삼아 古書의 眞僞와 年代를 推定해 낼 수 있다.

2) 舊文을 빼껴 적은 점에서 알아내는 것 : 이것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古代의 書를 모아서 이룬 것 :

戰國時에는 많은 書籍들이 決코 故意로 僞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篇幅은 책의 분량을 늘릴 慾心에 서거나 또는 애초에 類書였던 것으로 往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文章을 한 곳에 모은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全篇을 他書로부터 抄한 것 : 大戴禮記의 十篇은 曾子가 이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으나 曾子의 立身篇은 도리어 荀子의 修身·大略 두篇에서 따 모아 된 것이다. 荀子의 書는 僞作이 아주 적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거니와 修身·大略篇의 見解는 더욱 確實히 荀子의 것이다. 그렇다면 曾子의 立身篇은 반드시 大戴禮記를 엮은 者가 荀子로부터 抄했음에 틀림 없다. 또한 韓非子의 初見秦篇은 完全히 戰國策의 秦策一의 第四段과 같다. 다만 여기에는 韓非의 말이라 하고 저기에는 張儀의 말이라 하는 差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實은 韓非가 韓나라의 諸公子이니 初見秦篇에 나오는 것과 같이 良心을 속이는 말을 하면서 함께 敵과 祖國을 滅亡시킬 計劃을 꾸미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 篇뒤의 存韓篇을 볼 것 같으면 極力으로 韓나라를 保存하려고 하고 있으니 韓非는 決코 이와 같은 矛盾된 主張을 하지 아니 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篇은 分明히 책을 엮은 者가 他書로부터 抄해 놓은 것이다. 다만 戰國篇 自體는 類書와 같은 것이므로 그가 이 篇을 張儀의 것으로 들먹여 써온 것이다. 그러나 實은 이 篇 가운데 張儀가 죽은 뒤 49년이 흐른 일을 記錄하고 있다. 張儀가 어찌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었을까? 大概 初見秦篇은 本是 한 篇으로 傳해 내려온 無名氏의 游說라는 글들이었는데 文章이 좋기 때문에 戰國篇과 韓非子를 엮은 사람들은 이 글을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이밖에 또한 鸚冠子같은 것은 分明히 僞書였다. 韓愈의 분석에 依據하면 前三卷, 中三卷, 後三卷이 되는데 前卷은 完全히 墨子로부터 抄해 내온 것으로 實로 疑치 않는 일이다.

B) 一部分은 다른 책에서 抄한 것 : 이러한 것은 참으로 많다. 例컨대 商君書의 弱民篇에 있는 『楚나라 백성들은 모두 급하고 빠르다』 以下의 一段은 荀子 議兵篇에도 各國의 國民性을 批評한 句節 가운데 보이고 있다. 다만 荀子는 眞書이며 議兵篇은 荀子가 趙나라의 臨武君과 對談한 말이니 語調가 꼭 順調로울다. 그러나 商君書는 自體가 어떤 部分은 疑心스러우며 弱民篇은 또한 著述의 體制가 같지 못 한 것 같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은 商君書를 엮은 사람들이 荀

17) 文中子는 王通의 字 또는 그 著書. 一名 中說이라고 함.

子의 一段을 抄襲한 것이라 斷定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있으나 例를 많이 들지 않겠다.

둘째, 專心으로 僞書를 만들 뜻을 가지고 前人의 文章을 剽竊한 것: 意識적으로 作僞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自己를 믿게하는 데는 아무래도 古書를 많이 引用하여 섞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僞古文尙書같은 것은 東晉인이 만든 것인데 當時에 逸書가 펴 많았고 僞書者는 조그만한 資料라도 있으면 놓치지 않고 罅를 따서는 꿀을 빼듯이 거의 아무런 痕跡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淸나라 儒學者들은 僞古文의 出處를 캐어 거의 그 祖上(原文)을 찾아 냈다. 宋나라 儒學者 程顥·程頤·朱熹以來로부터 가장 高貴한 16字로 認定되어 온 「人心惟色,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희미하니, 오직 精誠과 專一로써 그 中道를 부디 저킬지니라)은 그들의 말에 依據하면 참으로 五千年前에 있는 文化의 唯一한 淵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出處를 캐어 보면 바로 荀子の 解蔽篇과 論語의 堯曰篇의 몇句를 들어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다. 解蔽篇에는 道經을 引用하여 『人心之危 道心之微』라 하였고, 堯曰篇에는 堯가 舜에게 命하는 말에 『允執其中』이라 하고 있다. 僞造者는 두 곳의 말을 한곳에 모아 놓고 또 「之」字를 「惟」字로 고쳐 놓고는 그 위에 『惟精惟一』이란 節을 덧붙여 16字의 專心秘訣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實은 이런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또한 列子만 하더라도 10中 3·4는 莊子와 같고, 또한 全段이 틀리지 않은 것도 있다. 列子가 비록 莊子의 先輩같은 하지만 莊子가 列子를 敘述한 것은 「渾沌·鯨·忽」(莊子가 얘기한 中·南·北의 神名들)을 敘述한 것과 같은 寓言이나 아니나 하는 것은 이미 問題거리이다. 假使 列子가 참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莊子는 先輩의 書를 剽竊한 것이지만 莊子는 決코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莊子는 作家요, 文章과 思想이 모두 대단히 좋다. 우리들이 列子와 莊子가 서로 大同小異한 것을 보면, 列子는 어떤 것을 고쳐 넣고 어떤 것을 덧붙여 넣고 있으나 아무래도 不通하는 것이다. 唐以後의 古文家들은 列子의 文章이 莊子에 比해서 더욱 奇異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實은 이른바 奇異하다는 곳이 바로 不通하는 곳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列子가 莊子를 抄한 것이지, 莊子가 列子를 抄한 것은 아니라고 證明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장 괴상한 例가 있다. 文子는 完全히 淮南子를 표절하여, 거의 一篇, 一段이 모두 淮南子의 原文이 아닌 것이 없는데, 다만 篇을 뒤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예컨대 淮南子의 第一篇은 「原道」인데 그는

「道原」이라 고쳐어 놓았으니 참으로 심겁기 그지 없다. 이러한 책은 何等의 價値도 없는 것이며 불살라도 아깝지 않다.

셋째, 뒤에 나온 책을 보고서 採取한 것: 例컨대, 焦氏易林은 焦延壽가 만든 것이라 하지만, 焦延壽는 漢나라 昭帝와 宣帝 때의 사람인데 그때는 左傳이 學官에 採擇되지 못했으므로 普通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易林은 左傳을 引用한 말들이 많다. 實은 左傳이 漢나라 成帝 때에 비로소 劉向이 中秘에서 發見한 것이다. 焦延壽가 어찌 左傳을 볼 수 있었을까? 이것은 分明히 東漢以後의 사람이 늦게 나온 左傳을 보고 비로소 假造한 것이다. 또한 列子의 周穆王篇도 完全히 穆天下傳과 같다. 前人들은 列子가 假짜 책이라고 疑心하였으나 四庫全書提要는 이러한 점 때문에 眞짜라고 했다. 實은 도리어 이 점 때문에 꼭 僞作임에 疑心할 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穆天子傳은 晉나라 太康二年에 비로소 出土되었고 列子를 假造한 張湛은 그뒤 얼마 안있다가 태어 났기때문에 張湛은 穆天子傳을 보고 周穆王篇을 비로소 만들게 된 것이다. 이것은 東漢以後의 사람이 左傳을 보고 易林을 비로소 만든 것과 무엇이 틀리는가?

3) 佚文上에서의 識別: 어떤 책은 年代가 오래 되어 상당히 散佚되었는데 後人들이 一部를 假作하여 거짓으로 대신하려고 했다. 우리는 眞짜의 佚文과 假짜의 全書를 比較하여 兩者의 有無同異를 보아 眞僞를 斷定해 낼 수 있다. 두가지로 나누어 말하겠다.

첫째, 從前에 이미 佚文이라고 말한 것이 現在는 오히려 全部가 있는 책으로 된 것은 僞作이라 함을 알 수 있다. 僞古文尙書의 每篇에는 모두 馬融·鄭玄·杜預 때에 이미 佚文이라고 말한 것이 많이 있다. 馬融·鄭玄이 東漢에서 全書를 볼 수 없었는데 어찌 東晉의 梅賾(譯註: 世說新語에는 頤)이 도리어 볼 수 있었을 것인가? 단지 이 消極的인 理由만으로도 이 책은 西晉인이 假짜로 만든 것이라 함을 證明할 수 있다.

둘째, A書가 佚書가 되기 以前 B書가 이것을 引用하여 지금 傳來되고 있는데 A書의 今本은 그 內容이 없거나 또는 B書에 引用된 말과 틀리는 경우 A書의 今本은 僞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例컨대 竹書紀年은 晉太康三年에 汲郡의 魏家에서 發見된 것이다. 晉書의 東晉傳에 記錄된 內容과 舊說이 다른 것에는 夏나라 年間에는 후환이 많았다. 啓가 伯益을 죽이고, 太公이 伊尹을 죽이고, 文丁이 季歷을 죽였다는 등이 있다. 當時 많은 사람들은 이때문에 竹書紀年이 僞書라고 疑心했다. 그러나 僞作者는 舊思想에 違反되는 말은 반드시 안 한다는 점은 몰랐던 것이다. 暫時 이것

은 제쳐 놓겠다. 今本은 그 說이 舊說에 違反된다하여 完全히 改削하여 조금도 옛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니 今本 竹書紀年은 반드시 晉時에 發見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孔子家語같은 것은 앞서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顏師固는 漢書에 註를 달면서 『지금 있는 孔子家語가 아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古文의 眞僞는 確證지을 수 없다. 다만 左傳正義에 觀周篇을 引用하면서 文柄이 沈滯하다고 말했다. 嚴氏春秋를 引用한 杜佑通典 69篇은 또 崔凱가 引用한 것을 引用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今本에는 없으니 今本이 假자인 것이며, 僞造한 王肅도 古本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古本은 비록 없어졌을지라도 아직은 他書에 一·二의 佚文이 남아 있으니 우리들은 이것을 引用해서 今本과 比較해 보면 今本の 眞僞를 考證해 낼 수 있다.

4) 文章上으로 본 識別: 이것은 네가지로 區分해 볼 수 있다.

첫째, 名詞: 書名이나 그안의 名詞로부터 그책의 眞僞를 알 수 있다. 例컨대, 孝經같은 것은 모두들 曾子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孔子가 만들어서 曾子에게 傳해 주었다고도 한다. 姚際恒은 이를 가려서 말하기를 『諸經은 本來「經」字를 부치지 않고 다만 易이라 하거나 詩라 하거나 書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그「經」字는 世俗에서 붙인 것이다. 스스로 孝經이라고 이를 붙인 것으로 보아 그것이 오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經」字를 떼어 버린다면 또 易·書·詩와 같이 한字的 書名이 될 수는 없다. 班固도 또한 이와 같은 점을 안 것 같다. 즉「孝는 天의 經이요, 地의 義요, 民의 行이다. 그 큰 것을 들어서 孝經이라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曲說이다. 어찌「天의 經」에서「經」字는 따서「孝」字에 붙여 書名으로 삼으면서「天」字를 떼어 버린 것인가. 또한「地의 義」등의 諸句도 떼어버린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이런말에 근거해서도 孝經은 決코 孔子나 曾子와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스운 例로는, 釋迦牟尼가 佛法을 말한 것은 모두 그의 大弟子로부터 傳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佛經은 10大弟子의 한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다. 즉『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니, 한 때 부처님은……大弟子인 某某와 더불어……』. 10大弟子가운데 한사람은 優波離라고 하는데 그는 婆羅門敎의 哲學者인 優波尼沙와는 한字的 差別이 없다. 現在 어떤 楞嚴經의 첫머리에는『이와같이 나는 들었노니, 優波尼沙가 말하기를—』이라고 되어 있다. 즉 佛敎를 反對하는 書名을 佛弟子의 이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人名·

書名의 分別은 佛經을 조금만 읽은 者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楞嚴經을 僞造한 者는 이것조차 混沌하고 있으니 이 어찌 우습꺼리가 아니라.

둘째, 文體: 이것은 僞書를 判別하는데 있어 가장 主要한 標準이다. 時代마다의 文體가 各各 같지 않기에 문에 좀 留意하기만 하면 쉬이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A時代의 사람이 D時代의 文章을 設使 模倣한다고 해도 專門家는 끝내는 發見해 내게 된다. 碑帖같은 것을 比喻해 말하면 많이 보고 많이 써 본 사람들은 곧 어느 時代의 產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詩詞같은 것은 比喻해 보면 많이 읽고 많이 지어 본 사람들은 곧 어느 時代의 作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僞造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模倣을 잘 했더라도 眞짜를 알아보는 專門家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文體로써 眞僞와 年代를 가려내는 作業은 辨僞學중에서 가장 發達한 것이다. 漢書藝文志의『大禹 37篇』下에 班固가 스스로 注하기를『傳해지는 말에禹가 지은 바라 하지만 그 文章은 後世의 말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文章으로부터 책의 僞作임을 밝혀 내는 것은 하나만이 아니다. 後漢의 趙岐는 孟子 外篇의 4篇을 짚아 버리며『그 文이 넓고 깊지 못하여 內篇과는 같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晉나라 郭豫이 莊子の 많은 篇을 짚아 버린 것도 文體로부터 莊子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斷定하고 있다. 僞古文尙書가 맨 처음 왜 사람들의 疑心을 사게 했는가는 大誥·洛誥·多士·多方의 말은 딱딱하고 平易하지 않은데 五子之歌·大禹謨는 도리어 쉽사리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으로 兩者의 差異가 너무 懸隔하기 때문이다. 萬一 後者가 確實히 夏初의 作品인데 이와같이 文字가 順調하다면 어찌 前者의 것은 商周의 作品인데 도리어 읽기 어려운 것인가? 참으로 괴상한 일이다.

勿論 어떤 사람들은 古字나 古句를 쓰기를 좋아하고 있다. 樊宗師·章太炎의 文章은 비록 近代 것이지만 읽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우리들은 적어도 淸朝人의 文章을 萬一 漢一代의 文章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같지 않음을 알아 낼 수 있다. 이밖의 많은 人士들의 文章은 모두 時代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기 쉽다. 僞古文尙書는 이러한 原則을 違背하고 있다. 이 몇 篇은 夏商의 것이라는데 도리어 商周의 것보다 알기 쉬우므로 사람들로하여금 懷疑치 않을 수 없게하여 僞作을 가려 내게 된 것이다.

이밖에 또한 蘇軾은 馬蹄篇이 莊子の 다른 篇과 같지 않다고 말하여 僞作으로 삼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莊子の 內篇과 外篇은 文體가 같지 아니하니 반드시 한사람이 지은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孝經·鬻子·子華子·充倉子같은 것은 한번 보아도 秦漢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고 유창하지 못할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尹子는 더욱可笑롭다. 六朝人의 佛經을 譯한 文體를 가지고 先秦의 것이라 僞託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文體를 觀覽하여 僞書로 하여금 숨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참妙味が 기른다.

위에서 가름한 것은 思想方面에 관한 책이지만 만약 文體를 통해서 文學作品的 眞僞를 가린다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例컨대 古詩19首는 前인들이 西漢의 枚乘이 지은 것이라 하지만 내가 본 바에 의하여 19首의 詩風은 完全히 『建安七字』와 같다. 西漢의 믿을 수 있는 言詩와는 決코 틀리니 西漢의 鏡歌 18章은 音節·腔調가 絶對로 19首와는 같지 않다. 東漢前期의 作品들과도 또한 같지 않으며 19首中에 있는 古洛·東門·北邙 등의 名詞는 모두 東漢以後에 비로소 習用되는 것임도 하나의 證據이다. 文體로써 論할 때에도 또한 西漢의 作品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東漢前期의 作品도 아니다. 詞의 起源을 볼 때 中唐의 劉禹錫·白居易가 처음으로 점차 詩句를 增減시켜 字語를 들쭉 날쭉하게 했지만 다만 單調뿐이었다. 그러다가 晚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變調로 되었다. 李白은 中唐사람인데 도리어 菩薩蠻·憶秦娥와 같이 잘 다듬어진 變調의 詞를 지을 수 있었으니 어찌 駭怪하지 않으랴. 萬一 李白의 詞가 眞짜라고 한다면 어찌 中唐부터 唐末까지 百餘年동안에 한사람도 이와같은 詞를 짓지 못하다가 溫庭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試圖되었을 뿐이고 아직 充分히 成熟되지도 못했는가?

事實 말하면 이같은 文體로서 僞書를 가려 내는 方法은 참으로 妙한 일이다. 말로 傳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原則은 絶對的이다. 書·畫·人相을 보는 것처럼 天才나 經驗이 있는 사람은 暗暗裡에 어떤 標準을 스스로 세울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標準을 써서 眞僞와 年代나 種類를 識別하는데 이 標準은 10分 信憑할만 하다. 그렇지만 말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오직 經驗이 많아야 한다. 經驗이 豊富할 때는 自然히 쓸 수 있는 것이다. 내 自身도 碑帖에 대하여 이러한 재주가 있다. 碑帖이 그 年代를 考證할 수 있는 어떤 證據도 보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그 字體上으로 어느 時代의 것이며 또 어느 時代의 前期 或은 後期の 것이라고 斷定해 말 할 수 있다. 碑帖을 僞造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前代의 것이라고 속이며 또 眞짜와 混雜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어느 것이 眞짜이고 어느 것이 假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古書의 眞僞와 年代를 가려 내는 것도 나는 이 方法을 慣用하

고 있다.

셋째, 文法: 僞作을 하려면 古人의 文章을 剽竊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文法을 觀察해 보면 바로 그것이 어디서 抄해 온 것인지 알 수 있다. 例컨대 中庸의 子思의 著라고 말하는데 子思는 孟子的 스승이니 中庸은 時期的으로 孟子에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崔述의 考證에 따르면 中庸은 孟子的 뒤에 나온 것이다. 證據가 많지만 文法上에도 그 證據가 있다. 崔述은 中庸과 孟子에 같은 말인 『在下位不獲乎上……』(下位에 있으면서 上位의 信任을 못받으면)이란 一章에서 字句의 異同과 文法의 좋고 나쁨을 比較하고 있다. 즉 孟子는 『語彙의 驅使가 比較의 正確하며…… 글의 앞뒤의 連結이 分明하며 文章의 作法이 甚히 巧練하다』라고 評하였고, 中庸에 使用한 虛字는 『亦是 孟子처럼 꼭 맞지 않는다』라고 評하면서 『中庸이 孟子를 剽竊한 것이지 孟子가 中庸을 剽竊한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고 말 했다. 또한 莊子와 列子가 서로 같은 部分에 대해서 前人은 莊子가 列子를 剽竊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前文에서 이미 莊子는 남의 글을 剽竊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을 言及한 바 있거니와 지금은 文法上에도 다시금 證明된다. 莊子의 應帝王篇에서는 壺子를 引用하여 『……이것은 거의 나의 衡氣機에서 볼 수 있다. 고래가 설설 헤엄치던 곳에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고, 물을 막아서 고이게 한 곳을 못으로 삼고, 흐르던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으니, 못은 이름이 아홉이며 여기서는 세가지만 든다』(……是殆見吾衡氣也 鯁桓之審爲淵 止水之審爲淵 流水之審爲淵 淵有九名此處三焉) 대체로 衡氣機는 대단히 形容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 세가지의 못(淵)을 들어 象徵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못으로 說明이 充分했던 것이다. 그러나 列子를 僞造한 사람은 爾雅에 九淵이란 이름이 있기때문에 그의 博學을 表示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黃帝篇에 『……이것은 거의 衡氣機에서 볼 수 있다. 고래가 설설 헤엄치던 곳에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고, 흐르던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고,汎濫하던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고, 많은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고, 구멍에서 새어 나오는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고, 막은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삼고, 깨끗한 물이 고인 곳을 못으로 하고, 기름진 물이 고이는 곳을 못으로 하니 이것이 九淵이다』이라 하니 필경에는 引用的 原意를 잃었으니 참으로 재주를 피우다 매주가 된 것이다. (衡을 弄하여 도리어 좋지 못한 일을 저질른다) 누가 列子는 莊子以前의 것이라고 믿겠는가. 또한 賈誼의 新書와 같은 것은 일찌기 亡佚된 것으로 今本은 10中 7·8이 漢書의 賈誼傳으로부터 剽

竊된 것이다. 賈誼傳의 事實과 言論을 新書에서는 十數篇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으며 또 各篇에는 各篇 篇名이 있다. 前人들은 漢書의 賈誼傳은 이 各篇을 따서 이룬 것이라고 말하나 그러나 其實은 賈誼傳의 治安疏는 全篇의 文章이 앞뒤의 聯關이 잘 맞는 것으로 自然 賈誼의 作品이다. 그러나 新書에서는 이것도 몇 篇으로 나누고 있는데 文章의 作法은 體系가 없으며 文章의 氣勢도 連結이 되지 않고 分裂된 痕跡이 顯著하다. 賈誼는 決코 하나의 疏를 割裂하여 여러 篇으로 만들었을리가 없으며 또 여러 편을 끊어 뿔아 하나의 疏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萬一 眞짜의 新書가 지금 있다고 하면 좋은 文章이 많이 있을 것이며, 今本처럼 疏陋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今本은 後人이 賈誼傳을 分析하여 이룬 것임에 우리들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넷째, 音韻: 歷代 語言의 變遷은 책에서도 역시 考察할 수 있다. 先秦에서 쓰던 韻과 廣韻은 여러가지 같지 아니하다. 이 같지 않은 原則은 모두 確定된 것이다. 例컨대, 「爲」「離」는 지금은 「支」韻에 屬하지만 옛날에는 「歌」韻에 屬했다. 三百篇(詩經)과 易의 象辭에서는 모두 「爲」「離」를 「支」에 叶韻하지 않았다. 「爲」는 반드시 「譌」와 「禾」로 읽었고, 「離」는 반드시 「羅」로 읽었다. 그리고 「爲」「離」를 「支」韻에 叶韻한 것은 戰國末年에 비로소 있었다. 九歌의 少司命에서는 「離」를 「辭」「旗」「知」와 叶韻했고, 離騷의 東君에서는 「蛇」를 「雷」「懷」「歸」와 叶韻했고, 韓非子의 楊權篇에서는 「離」「知」「爲」와 叶韻했다. 이러한 證據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原則은 承認치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들은 이제 老子를 돌아 보면 無常히 느껴지는 점이 있다. 老子의 第9章에서는 『明白四達 能無知乎』(聰明하고 四方에 達通하니 어찌 알지 못함이 있으리오)라고 하여 「知」字를 그 위의 「離」「兒」「疵」「爲」「離」와 叶韻하고 있다. 나는 本來 老子는 孔子(譯註: 老子의 誤일듯)의 作品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데 證據가 또한 甚 重要하다. 이로부터 老子는 반드시 戰國末年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는 것이다. 萬一 老子가 確實히 孔子와 同時의 사람인 老聃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이 叶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깝게도 우리는 古語의 變遷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많이 알고 있다면 辨僞의 證據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금 한 例를 들어 그 嚆矢로 삼을 뿐이다.

5) 思想上의 識別: 이 方法도 또한 大端히 主要한 것이다. 前人들은 比較的 저게 썼으나 우리들은 도리어 아주 좋은 標準으로 看做한다. 이는 네가지로 나누

어 말 할 수 있다.

첫째, 思想의 體系와 傳授하는 家法으로 본 識別: 이것은 반드시 某人에게 某書가 가장 믿을만한 것이라는 것과 그의 思想의 要點이 무엇인가를 確定하고 난 다음에 이는 다른 책의 思想과 믿을 수 있는 책에 涵化된 思想이 矛盾될 경우에 그것이 僞作임을 斷定할 수 있는 것이다. 例컨대 孔子의 책중에서 論語를 가장 믿을 수 있다면 繫辭는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바 있다. 孔子는 現實主義者요, 決코 幻想의 人념새를 풍기지 않았다. 그런데 繫辭는 아주 老壯學의 냄새가 짙게 풍겨서 論語와는 相反되고 있다. 우리들이 論語를 믿는 이상 最少限 繫辭는 孔子自身の 著가 아니라 함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孔子는 主張이 一貫되지 못하고 自家矛盾에 隨着되는 사람이 되니 이는 또한 思想體系上 通하지 않는 말이다.

또한 柳宗元이 晏子春秋를 가린 것은 가장 좋은 思想上의 識別例이다. 비록 甚 精密하지는 못하지만 晏子春秋는 齊人으로서 墨子의 學을 研究하는 者들의 假託한 것이라 함을 斷定했다. 書中에는 墨子의 말이 많은데 晏子는 孔子의 先輩인데 어떻게 墨子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인가? 이로 보면 晏子의 自作이 아님은 自然 알 수 있다.

또한 老子는 老聃의 作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孔子가 禮를 물은 老聃인지 아닌지 또 이 老聃이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잠시 不問에 붙이겠다. 가령 우리들은 이 사람이 있었다고 믿고 孔子가 果然 참말로 禮를 물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禮記의 曾子問에 記錄된 孔子와 老子가 問答한 말도 眞實한 것이라 믿지 않을 수 없다.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면 이 말은 根本的으로 老子의 五千言(즉 道德經)과 相容되지 않는다. 曾子問에 나오는 老聃은 禮儀와 小節을 따지는 사람이며 決코 五千言을 지은 老子가 될 수 없다. 五千言을 지은 사람은 또 대저 禮란 忠信이 없어져서 나온 것이요, 亂世의 시작이니라』(譯註: 老子第38章)이라고 하였으니 孔子와 더불어 禮를 말한 것들이 있겠는가! 老子의 五千言은 도대체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決코 孔子가 禮를 물은 老聃의 作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尹文子에 나타난 思想은 참으로 좋지만 決코 尹文子가 지은 것은 아니다. 莊子의 天下篇에는 尹文子와 宋鉞을 함께 들어 말하기를 『上下에 說教함에 있어 비록 天下가 그 說은 取하지 아니하여도 억지로 떠들석하게 말하면서 그 說을 버리지 않는 者이다. ……君子는 嚴하게 살피서는 안되고 自身을 위해서 外物을 빌려서는

안된다고 하여 天下를 위해서 無益한 者는 그 明哲함이 自己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밖으로는 軍事를 줄임으로써 救世하고, 안으로는 情慾을 적게 함으로써 克己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는 基督敎인 精神이 꽤 많음을 알 수 있다. 한두마디의 말을 끄집어 내서 부연한다면 그들은 모든 事物에 있어 嚴하게 살피지 않고 있으니 名家와는 決코 같지 않다. 그런데 後人들은 모두 그를 名家라고 여기고 있으며 今本 尹文子도 또한 名家의 말(學說)이다. 우리가 天下篇을 믿는다면 今本の 尹文子(書名)는 尹文子의 作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續書에 나타난 思想이 顯著히 天下篇과는 틀리기 때문이다.

以上은 先秦시대의 여러책의 예이지만 아래에서는 두가지의 佛經의 예를 들고자 한다. 앞서 起信論과 楞嚴經은 假짜라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여러 方面에서 모두 論證할 수 있지만 가장 主要한 要素는 역시 思上에 있어 根本的으로 佛經과 서로 알맞지 않는 點이다. 起信論에는 「無明」의 起源을 말하면서 『갑자기 思念이 일어나서 「無明」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佛敎 敎理에는 容納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佛敎에 있어 가장 主要한 12因緣은 어느 派를 莫論하고 모두 이 原理에 違背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2因緣이 서로 對應하여 理象이 이로 말미아마 일어난다. 因緣이 없는 것이자 일어나는 事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主觀과 客觀이 서로 對應하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一切의 法은 모두 因緣으로부터 생기는 것인데 起信論에는 『갑자기 思念이 일어나서 「無明」이 있게 된다』는 思想은 根本的으로 佛敎의 敎理와는 違背되는 것이니 當然히 佛敎의 책은 아닌 것이다. 楞嚴經은 우스운 思想이 더욱 많아서 「長生」이나 「神仙」이란 황당한 話題로 풍만 되어 있다. 道敎의 暗示를 받고 佛敎의 眞諦를 剽竊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열종류의 仙人이나 平生 늙지 않는다(10種仙人 長生不老)는 것은 道敎의 가장 높은 理念(企冀)인 것인데 佛敎는 도리어 神仙·靈魂·生命을 가볍게 본다. 絕對로 相容되지 않는 것이다. 참다운 佛經에는 決코 楞嚴經에서 말하는 따위는 없는 것이며 이로써 楞嚴經은 假짜임을 알 수 있다.

傳授의 家法으로서도 책의 眞僞를 識別해 낼 수 있다. 漢朝 諸儒의 家法은 대단히 嚴하며 各自들의 混淆를 容納치 않고 있다. 申培는 魯詩를 傳한 사람이었고 劉向은 그 뒤에 일어난 사람이었다. 萬一 申培의 詩說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劉向의 見解와 같았을 것이며 齊詩 韓詩와는 틀렸을 것이며 毛詩와는 더욱 몇千里나 될지모를만큼 差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今

本の 申培詩說에는 도리어 10분의 9가 毛詩를 抄해 배긴 것이다. 毛詩와 魯詩는 相反되는 것인데 申培가 어찌 毛詩說의 말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다른 方面으로부터도 이미 今本の 申培詩說은 明人의 捏造임을 證明했지만 이 또한 根據가 되는 것이다.

둘째, 思想과 時代의 關係로부터 識別해 낼 : 思想은 반드시 進化하며 나날이 變化한다. 設使 退化가 되더라도 반드시 時代的 關係가 있다. A時代의 思想과 B時代의 思想은 반드시 關聯과 影響이 있으며 서로 反對되거나 서로 맞는 것이거나간에 理由가 없는 發生이란 있을 수 없다. B 時代에는 某種의 思想은 반드시 그가 生成된 原因과 條件이 있다. 萬一 그러한 樣相이 없다면 그것은 곧 發生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A時代가 B時代に 앞서고 또 某種 思想의 原因과 條件이 여기에 發生되지 않았는데 도리어 某種 思想을 涵有하고 있는 책을 A時代に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런 책은 반드시 僞作이다. 例컨대 列子에서는 많은 佛理를 말하고 있으니 佛經을 본 사람들이라야만 비로소 만들 수 있다 함은 두말할 것 없다. 列子は 戰國人인데 佛經은 東漢時代に 비로소 中國에 들어왔으니 列子가 어떻게 佛經을 얻어 볼 수 있겠는가? 從前에 어떤 사람은 『佛敎가 奇黑할 것이 뭐 있나? 우리(中國)戰國時代に 이미 列子가 이 理致를 이야기한 일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우리는 다만 思想이 불속 생겼다는 점만으로도 列子가 僞造되었다는 것을 足히 證明할 수 있다. 勿論 많은 思想은 或是 中外의 哲人들이 約束이나 한듯이 偶然히 暗示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佛敎가 印度에서 發生한 것, 그리고 釋迦牟尼에 依해 創造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그 發生의 原因과 條件이 있는 것이다. 戰國時代의 中國은 完全히 當時의 印度와는 같지 않을뿐만 아니라 全然히 佛敎의 敎理를 發生할만한 條件과 原因이 없었다. 列子는 이런 環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佛敎의 敎理와 같은 思想을 發生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陰陽家의 思想은 곧 鄒衍이 처음 만든 것으로서 鄒衍以前에는 陰陽을 專門的으로 말한 이가 없었다. 書經·詩經·論語·孟子와 周易의 卦辭·爻辭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周易의 象辭·象辭에서도 다만 泰·否 두卦에서만 이 두 글자를 言及했을 뿐이다. 그런 繫辭·文言에는 陰陽論을 잔뜩 실고 있다. 從來의 陰陽 두 글자는 다만 相反을 表示할 뿐이었고 哲學的인 意味는 결코 없었다. 繫辭·文言에는 哲學上의 術語를 誘導했는데, 이것은 分明히 우리들에게 卦辭·爻辭는 한 時代의 產物이며 象辭·象辭는 또 다른 한 時代의 產物이며



결코 같은 時代의 産物이 아니라 함을 알려 준다. 또한 우리에게 繫辭·文言은 鄒衍의 思想的影響을 깊이 받은 것이며, 또한 陰陽家—儒家的 齊派—가 만든 것이며 時期는 戰國時代의 末期였다 함을 分明히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思想的 發生은 一定한 順序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管子에서 「兼愛」와 「非攻」을 非難한 말도 興味 있는 일이다. 「兼愛」와 「非攻」은 完全히 墨家의 主된 口號였다. 墨家의 發生은 管仲이 죽은 百餘年後의 일이다. 管仲이 管子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墨家의 口號를 알았을 것인가, 이로써 管子는 管仲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그 책이 이룩된 것은 반드시 墨家가 盛行된 뒤의 일이라 함은 알 수 있다.

또한 老子가 仁義를 限死코 攻擊한 것도 더욱 재미 있는 일이다. 孔子以前에는 「仁」의 重要性에 대해서 注意를 기울인 사람이 없다. 孔子로부터 비로소 仁으로써 人格의 最高標準으로 삼고 「智」와 「勇」과 함께 舉論했다. 孟子以前에는 「仁義」를 같이 말한 이가 없었다. 孟子로부터 비로소 「義」와 「仁」을 同等하게 待遇하고 人格을 만드는 標準으로 하고 있다. 孔子의 가장 큰 功勞는 바로 「仁」字를 發明한데 있고, 孟子의 가장 큰 功勞는 곧 義字를 發明한데 있다. 이 뒤로부터 一般人들은 비로소 仁義의 重要함을 알게 됐다. 老子란 책이 설사 孔子의 先輩인 老聃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지마는 이 때는 孔子도 「仁」字를 아직 提唱하기 전이었고 孟子가 아직 세상에 태어 나기前이었으니 「義」字를 부르고 쓴 사람이 없었었다. 그러면 老子가 仁義를 攻擊하는 것은 「포정없이 화살을 쓰는 格」(無的放矢)이 아닌가, 이점에서 老子란 책은 비단 孔子의 뒤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욱 孟子 뒤에 나온 것이라 함을 우리는 斷定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老子에는 賢사람들이 賢을 자랑하지 않으면 百姓들은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sup>18)</sup>(不尚賢 使民不爭)는 말이 있는데 『尚賢』은 곧 墨家의 口號였다. 墨家は 孔子以後에 發生한 것이니, 이것도 老子가 늦게 나왔다는 조그만 證據가 된다. 既舉한 例와 같은 理由로, 같은 仁義 두字에 말이 미친 김에 생각난 것이지만, 또한 繫辭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道를 「仁」과 義라 한다』(立人之道 曰仁與義)라는 말이 있다. 仁義를 이미 함께 舉論한 것은 孟子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앞에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繫辭는 孟子以後의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도 여기서 斷定할 수 있다. 上述한 諸例로부터 우리는 思想과 時代의 關係에 注意를 기울이면서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를 識別해 나간다면 恒常 重要的 發見과 盡盡한 興味가 있을 것이다.

셋째, 專門術語와 思想的 關係로부터 識別해 낼 : 例컨대 今本의 鄧析子 第一篇은 無厚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鄧析이 「無厚」의 說을 主張했다고 한다. 그러나 도대체 鄧析이 책을 著述했는지 안했는지가 本來 問題가 되고 있다. 아마도 戰國時代의 사람이 책을 쓰고 鄧析의 이름을 假託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無厚』는 戰國時 學者들의 特殊用語였다. 墨經에 『끝(端)은 몸(體)의 無厚로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다』(端, 體之無厚而最前者也)라는 말이 있고 莊子의 人間世에는 『無厚로서 간격속에 들어 가는 것』(以無後入有間)이라는 말이 있고 無厚의 뜻은 墨經의 說解에 의하면 幾何學에서 말하는 點으로서 面積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 莊子의 人間世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틈이 없는 아주 얇은 칼날이라 比喻하고 있다. 즉 하나의 象徵일 뿐이다. 戰國時代에 名家들은 이점에 대해 討論하기를 아주 즐겼었고 이 無厚의 뜻도 學者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었다. 鄧析자가 名家의 書라고 呼稱하는 이상 이 點에 대하여는 마땅히 誤解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今本은 사람들에게 失望을 주고 있다. 無厚篇의 첫머리에는 『하늘은 사람에게 대해 無厚(각박)하고 임금은 百姓에 대해 無厚하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無厚하고 兄은 동생에 대해 無厚하다……』라고 말하여 厚字를 實際的인면서 具體的인 道德의 名詞로 보았고 無厚를 刻薄으로 解釋했다. 이 淺薄한 思想은 專門術語조차 그릇되게 쓰고 있는 주제에 敢히 古書로써 假託하려까지 생각했다. 이런 點으로 보아 鄧析子는 鄧析이 지은 책이 아닌 것이며 또한 戰國人들이 僞作한 것도 아니고, 完全히 後世의 不學 無識한 사람이 根據없이 지은 것이다. 이와같이 通하지 못할 책은 比較的 적은 편이다. 지금 많이 例學하지 않겠다.

넷째, 後代의 學說을 踏襲한 점에서 識別함 :

이것은 비록 思想과는 別로 큰 關係가 없지만, 역시 眞僞를 識別할 수 있다. 子華子는 僞書에 틀림없으나 僞作者는 漢人도 아니고, 唐人도 아니요, 宋人이 한 것이다. 그것도 南宋人이 아니라, 바로 北宋人이었다. 어찌 아는가하면 그것은 이 책속에 王安石의 學說을 剽竊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學說은 南宋에 와서는 이미 法行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晁公武의 郡齋讀書法에서 그것을 北宋末年의 사람이 僞作한 것으로 斷定하고 있다. 또한 申培詩說같은 것은 앞에서 이미 僞書라고 말 했지만 그는 또한 朱熹의 毛詩集傳의 說을 포괄하고 있으니 南宋以後의 사람이 僞作한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孔叢子에 『六宗을 票祀지낸다』는 말은 完全히 僞古文尙書의 孔安國傳 및 僞孔子家語와 같으니 이는 西晉以後의 僞書라 함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말한 것은 眞僞를 識別하고 그 年代를 考證하는 다섯가지의 方法이다. 이러한 方法을 應用함으로써 古書에 대해서 비로소 대단히 明瞭한 認識을 갖게 된다. 이것은 반드시 記憶해 두어야 할 한 章인 것이다. (다음號에 繼續)

釋註 18) 國家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賢知를 자랑하므로 天下사람들은 賢知를 다투니 賢사람들이 賢을 자랑하지 않으면 百姓들은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는 뜻이다.